

이상적인 여자



강 현대는 전화의 다이얼 버튼을 또박또박 눌렀다. 신호음이 두어번 울린 후 곧이어 신호가 떨어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미애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외출 중이거든요. 성함과 전화번호를 말씀해주시면 돌아오는대로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그다음은 빼익-하는 신호음이 들렸다.

현대는 당황해서 이내 전화를 내려놓았다. 그는 하니문 아트기획에서 등기로 보내온 통지문을 읽었다. 전화번호는 맞게 돌렸는데 이름은 틀렸다.

전화의 자동응답기에서는 손미애라고 했지만 통지문에는 손금미였다. 아마 이름을 가명으로 썼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현대는 다시 다이얼을 돌렸다. 자동응답기는 아까와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는 목청을 가다듬어 큰 소리로 말했다.

「하니문 아트기획에서 행운의 통지를 받고 전화를 드린 강현택입니다. 돌아오시는대로

전화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는 전화번호를 또박또박 말했다. 이제는 여자의 전화만 기다리면 되었다.

하니문 아트기획은 최신 컴퓨터 정보망을 갖춘 결혼상담센터였다. 그곳에는 전국 미혼남녀 수십만명에 대한 정보망을 갖고 있으며 그곳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회비를 내면 2천여개에 달하는 개인의 신상명세카드가 컴퓨터에 입력되어 총각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신부감을 알선해주고, 처녀에게는 가장 바람직한 신랑감을 소개해준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일생의 중대사인 결혼을 감정에만 호소하게 되는 연애결혼이라든가 마담뚜의 주먹구구식 조건 절충이라든가 또는 이웃의 소개로 연애반 중매반이라는 애매한 과정을 피하고, 자신의 모든 조건과 원하는 배우자의 조건이 통계적으로 절충되는 가장 합리적인 배우자 선택, 그것이 바로 컴퓨터가 대신해주는 제도였다. 성혼율 92%가 바로 하니문 아트기획의



자랑이었다.

상현태는 연애도 실패하고 중매도 수십번이나 좌절당하자 이제는 컴퓨터에 자신의 운명을 걸어보기로 작정했다.

그가 회원에 가입하여 2천여개나 되는 개인 설문조사를 솔직히 기록하고 두 달이상이나 기다린 끝에 드디어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지은 것이다. 그는 스스로가 현대여성들이 가장 바라는 전형적인 결혼조건을 가진 남자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나이 27세의 일류대학 경제과 출신의 둘째 아들로 87년도에 일등 신랑감으로 뽑혔던 학자·교수직에서 88년에는 의사·변호사 등 '사'자 직업이 공급과잉으로 인기가 하락되자 요즘에는 대기업의 사무직이 신랑감 랭킹1위로 올라섰고 원하는 나이차는 2살 혹은 1살로 전문직여성을 원하며 건강하고 밝은 성격에 키도 175센티미터 정도.

그냥 대강만 늘어놓아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에게 단지 단점이 있다면 아직까지 임자를 못만났다는 것 뿐이었다.

그는 스물일곱의 나이가 아직은 좀더 여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직장도 안정된 상태에서 이미 부모와 독립하여 아파트까지 갖춘 상태에서 결혼을 미루는 것은 정서적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판단했으므로 좋은 여자를 만나면 빨리 결혼생활의 안정 속으로 돌입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었다.

더구나 주위에서 수없이 결혼 중매가 들어오고 소개가 들어오면서 그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행여나 하는 심정으로 기웃거리다 보니 열이면 열이 시간과 감정의 낭비일 뿐 뭐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었다.

그 이유는 조건도 안맞고 성격도 안맞는 점도 있었지만 모두가 상대방이 자기에게 갖는 욕심이 큰 탓이어서 성사가 어려웠다.

어차피 연애결혼이 아닐 바에는 조건의 고른 조화를 통해서 위험부담이나 감정적 충동을 피하고 결혼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편이 좋다 라고 그는 결론을 내린 터여서 사랑은 그후에 서로가 일구어내는 열매라고 여겼다. 그게 그의 순서였다.

따라서 컴퓨터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다. 적어도 내 카드는 수십만명의 배우자를 상대로 최대다수의 결론을 도출해내지 않겠는가.

그렇다. 때문에 손금미라는 여자는 내 카드가 골라낸 최상의 여자임에 틀림없다고 그는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현대를 컴퓨터피아시대라고 하지 않았는가. 컴퓨터가 선택한 당신의 미래는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그는 이제 자기 암시에 걸려 컴퓨터가 선택해준 손금미가 지금까지 자신이 바라던 구원의 여인상이라는 기대를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다리던 전화는 오지 않았다.

그는 퇴근 후에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전화를 기다렸고, 주말이면 열심히 전화통 앞에 앉아있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그의 귀에는 여전히 예의 자동응답기의 기록된 테이프의 반복 음성 뿐이었다.

그러자 그는 틈만 나면 전화번호를 돌리기 시작했다. 퇴근 후 밤9시까지 하던 전화를 차츰 시간을 늘려 밤 12시까지 했다.

그러자 그가 전화를 해댄 지 열흘만에 드디어 신호가 떨어졌다.

「여보세요?」

자동응답기에서 들던 귀에 익은 바로 그 목소리였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현태라는 사람입니다. 하니문 아트기획의 소개를 받고 전화를 드린 겁니다.」 「하니문? 아트 기획?」

여자는 그의 말을 듣고 한참을 머뭇거렸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되는 모양이었다.

「컴퓨터 결혼정보센터 말입니다. 님이 손금미씨 맞죠?」

「아! 네에... 하니문? 그래요 맞아요. 제가 손금미예요. 하두 오래 돼서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님이 컴퓨터가... 아아! 네에」

여자는 계속 감탄사를 지어내는 바람에 현태는 그녀가 무척 감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전화는 꽤 오래 전에 드렸는데 자동응답기만 나오더군요. 혹시 제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가요?」

「죄송하지만 전화가 그동안 고장이었어요. 자동응답기만 나가고 상대방 메모가 전혀 기록이 안되고 있었거든요? 물론 신호도 고장이었어요.」

「아! 그랬었군요」

그다음 둘이는 한동안 말이 끊어졌다. 강현태는 이윽고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인데 한번 만날까 싶습니다만...」

「그래야죠. 하지만 만나기 전에 컴퓨터의 신뢰도에 관해서 서로가 몇가지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전화로 괜찮을까요?」

「좋아요. 이미 대단히 세밀한 내용들을 입력시켰습니다만 컴퓨터가 우리들의 조건을 충족시켰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때로는 기계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고마와요. 그럼 먼저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어요.」

그리고 여자는 질문을 기다리는 듯 잠잠해졌다.



유 흥 종

- 작가 약력 -

- △1976년 현대문학에서 소설 추천등단
- △1983년 <불의 희생>으로 대 한민국 문학상 신인상 수상
- △1986년 <서울에서의 외로운 몽상>으로 소설문학 작품상 수상
- △주요작품집 <불새> <수녀아가다> <서울무지개> <추억의 이름으로>의

현태는 주저없이 이번 기회에 정확하고 솔직한 질문으로 여자의 핵심을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어, 여자신가요?」

「네에 틀림없어요. 잘 물으셨습니다. 그쪽은 틀림없이 남자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미혼이겠지요?」

「맞습니다. 미혼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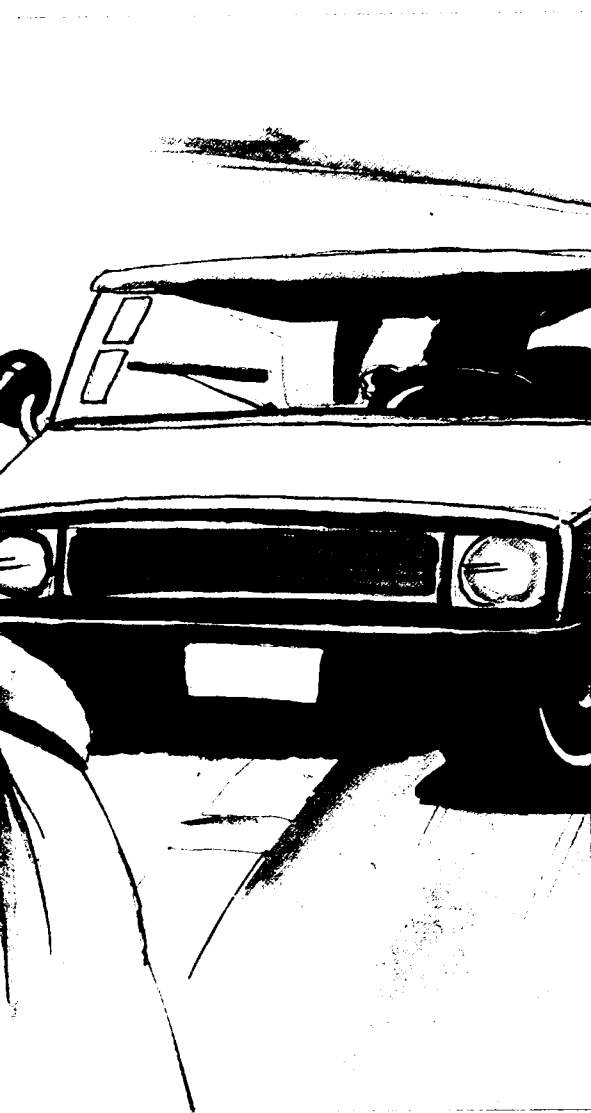
이번에는 여자의 감탄이 흘러나왔다.

「손금미씨는 결혼을 하실 작정인가요?」

「그럼요. 전 신랑감을 구하고 있었어요.

강현태씨가 신부감을 원했던 것처럼요.」

「아무리 컴퓨터지만 지금까지 몇가지 서로가 확인해본 것만으로도 너무나 쪽집게처럼 맞추고 있군요. 전 더 이상 손금미씨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전 컴퓨터를 별로 믿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상대방을 정확하게 꼬집어 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강현태씨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지금 숨을 쉬고 계시고 눈을 몇번 깜박거리고 전화기를 들고 말씀을 하고 계신거죠?」

「손금미씨두 그런가요?」

「어머나!」

그녀는 너무 놀래어 수화기를 놓고 말았다. 그녀는 너무나 놀래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가 남자며 미혼이고 결혼을 원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더이상 확인해야 할 일이 없었다.

강현태는 이제야말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남은 일은 그녀와 만나서 불의 키스를 나누고 결혼날짜를 잡으면 되는 일이었다.

「전 지금이라도 당장 손금미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갈망하던 배필을 이제야 찾았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현태는 열정에 들뜬 목소리를 지어내며 말했다.

「그래요. 현태씨, 저도 애타게 기다리던 백마탄 기사를 만난 기분이에요. 지금 당장 뵙고 싶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요.」

「지금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다동 은하수아파트 10동15호예요. 제 집에 오시면 벨을 세번 눌러주세요. 한번은 짧게 두번은 길게 그리고 세번째는 다시 짧게... 아아...」

그는 전화를 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너무나 갑자기 끊어오른 열정때문에 그는 잠시 혼란을 일으켰지만 현대의 컴퓨터피아는 미래의 행운을 일본 일초의 유예도 없이 정확하게 맞추는 법이다. 적어도 컴퓨터에는 시행착오나 시간의 오차나 감정의 낙차조차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아파트를 나서자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오는 날밤의 질주란 더없이 좋은 격성을 안겨주리라. 적어도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는 이처럼 엄청난 비가 한층 충격적인 기쁨을 보태줄 것이 아닌가.

그는 자신의 흰색 승용차의 페달을 밟았다. 속도계 지침이 백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마치 백마를 타고 공주를 만나러 가는 기사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연한 운명이란 없는 것이다.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미래의 반려자를 오늘 이 빗속에 갈무리해둔 행운처럼 움켜질 수 있었던 것은 컴퓨터피아가 이룩한 기적의 탄생 덕분이 아닌가. 현태는 은하수아파트에 도착한 다음 10동15호를 찾아 거침없이 벨을 눌렀다. 짧고 길게 그리고 짧게 벨을 울렸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는 수위실에 찾아가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한달 째 비어있는 집인걸요. 물론 전화도 있을 리가 있나요. 잘못 아신 겁니다.」

그는 그다음날 전화를 했지만 귀에는 여전히 똑같은 자동응답만 들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외출 중입니다. 성함과 전화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곧 전화해 드리겠습니다...」